

A-3. 치아발거직후 골이식재를 이용한 치조제 보존술의 임상증례

유상준*, 장현선, 김병욱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

치주 질환, 치아우식증 및 외상등 에 의해 치아가 발거 되면, 발치와는 5단계의 치유기전을 통해 치유 되며, 16주가 되면 발치와에 골이 완전히 차게 된다.

그러나, Johnson(1963, 1969)은 16주가 지나면서 발치와의 외형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초기 치조제 폭의 50%에 해당하는 5-7mm 정도의 수평적 또는 협설측 흡수가 6-12개월 사이에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치조제의 수직적 흡수 역시 2-4.5mm 정도로 일어났다. 그리고 치조골 흡수에 의한 체적변화의 2/3이 발치후 첫 3개월에 일어났다는 보고도 있다.

이런 치조제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특히 병적 또는 외상으로 인해 손상 받은 발치와의 경우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손상으로 인한 섬유조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치유와 골 재생과정이 방해 받게 된다.

임상적으로, 골 흡수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위는 심미부(상악 전치부)나 발치 전부터 잔존치조골이 최소인 부위이다. 그리고 상악전치부는 골판이 얇기 때문에 발치중 비가역적 외상에 의해 치조제 흡수 가능성이 특히 높다.

혈병이 수축하고 결합조직이 재생되면서 골이 적절한 양으로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발치와가 붕괴되고 이에 따라 골 외형이 소실되면서 결국에는 심미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치시 얇게 남은 치조골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발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발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치와의 붕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socket preservation technique을 발치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발치후 치조제 붕괴가 예상되는 부위에서 골이식재를 통한 치조제 보존술의 임상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Case I : In maxillary-anterior teeth(multi-teeth), Bio-Oss & Ovate pontic was used.

Case II : In maxillary-anterior teeth(multi-teeth), HTR & Ovate pontic was used.

Case III : In mandibular-anterior tooth(single-tooth), HTR & Ovate pontic was used.